

# 靑少年의 家出에 관한 一考察

高明奎\*

## 目 次

- I. 序 論
- II. 家出의 原因과 形態
  - 1. 家出의 原因
  - 2. 家出의 形態
- III. 家出의 實態와 特徵
  - 1. 家出의 實態
  - 2. 家出의 特徵
- IV. 指導方案
  - 1. 一般的인 豫防法
  - 2. 事後 指導法
- V. 結 論

## I. 序 論

인간은 누구나 思春期에 이르면 한번 쯤은 머리 속에서 집을 나와 보고 싶다는 家出空想을 하게 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가출공상의 背景에는 막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로부터 獨立하려고 하는 欲求라든가, 뭔가 혼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自信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이 시기의 가장 두드러진 심리적 특징으로서의 自我意識의 高潮, 心理的 離乳, 情緒的 疾風怒濤, 反抗 같은 것에서 가출을 회구하게 된다.

특히 이 시기의 새로운 刺戟과 冒險을 구하려고 하는 心理는, 문제가 없는 가정 즉, 가족간의 人間關係에 특별한 障礙가 없을지라도 가정생활이 너무나 단조롭고 情感이 없다든가 하면 이런 환경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動機를 더욱 촉발시킨다.

물론 가출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肯定的인 側面도 있고, 또 청소년만이 아니라 成人에 있어서도 問題가 된다. 그러나 특히 靑少年의 경우, 그 發見이 늦다든가, 事後指導가 잘못되었다든가 하면, 그 결과는 非行으로 연결된다든가 범죄의 被害者로 전락된다든가, 나아가

\*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심리적 자멸인 自殺行爲에까지 몰아넣게 된다는가 하는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非行靑少年으로 타락하고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적인 健全發達에 장애를 받게 된다면, 이는 참으로 個人을 위해서나 國家社會를 위해서 큰 不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 청소년의 가출이 성인의 그것 보다 훨씬 問題의 深刻性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곧 말을 바꾸면 청소년가출이 問題가 되는 것은 집을 나갔다는 행동 그 자체보다도 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家出後의 結果의 狀況이 危險視 됨으로써, 이후의 상황을 방지하기란 現 社會實情으로는 예측하고 기대하기가 꼭 어렵다는 점에서 가출을 事前에 豫防하고 防止하는 데 그 意義가 크다는 것을 強力히 示唆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稿에서는 청소년가출의 原因과 形態, 實態 및 特徵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청소년가출의 지도방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一般的인 豫防法과 가출후의 事後 指導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攻究·提示하는 것을 研究의 目的으로 삼는다.

## Ⅱ. 家出의 原因과 形態

여기에서는 먼저 청소년가출의 원인과 형태를 진단·검토하기 전에, 가출의 의미와 가출청소년의 심리적인 기제를 고찰하기로 한다.

### 1. 家出의 原因

가출이란 행동에는 다음 두 가지 意味가 내포된다.<sup>2)</sup> 하나는 가정으로부터 도피행동이라는 의미와 가정의 보호로부터 자유독립을 위한 제1보라는 의미이다. 또 하나는 부모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보호자에 의한 보호·감독이 청소년의 욕구충족에 대한 방해나 압력이 되어, 거기에서 벗어날려고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청소년이 保護者의 許絡을 받지 않고 그 保護·監督을 떠나 집에 돌아오지 않는 行動”으로 家出의 定義를 내린다.

일반적으로 家出發生의 過程<sup>3)</sup>을 보면 가출에는 그것에 몰아넣는 내적·외적인 압력에 더하여 가출과 결부되기 쉬운 욕구가 있고, 이것에 가출을 행동으로 옮기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나 조건이 겹치어 발생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것들이 서로 복잡하게 중복되고 조합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1) 金箕斗, 韓國少年犯罪研究(서울: 博英社, 1970), p. 9.

2) 文部省, 「精神的な適應に關する諸問題」(東京: 文部省, 1986), p. 13.

3) 同揭書.

安載禎, 靑少年의 意識과 非行, 非行善導叢書, I(서울: 韓國基督教靑少年善導會, 1982), p. 67.

여기에서 가출로 몰아넣는 內·外的인 壓力으로서는 보호자의 보호·감독의 태도(지나친 지배나 간섭, 과잉보호와 기대, 형제자매간의 차별, 거부, 무관심, 방임 등), 가정의 불화, 부모의 변동이나 결손, 가족의 질병, 경제적 불안, 본인의 질병, 학업부적응이나 학업부진, 진로의 불안, 대인관계의 부적응이나 결여, 일상생활의 권태, 비행, 그리고 벗으로부터 유혹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러한 것에 의해서 일어난 불안이나 불만 및 갈등 등이 적절히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정으로부터 도피해서 자유를 찾는다고, 부모에 대한 반항이나 불만의 표시로서 집을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압력들이 가해져도 가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같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면 가출을 바라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이에 바로 관계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나 조건이 보태여지면 가출을 실행해 버릴 위험이 높다.

다음에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家出欲求 중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는 욕구(결혼이나 취직·진학 등), 자유나 화려한 도시생활에 대한 동경심, 반항과 모험심, 성적인 욕구충족 등을 내포하며, 더구나 교통기관의 발달, 남의 일에 무관심한 사회풍조 등이 첨가하고 가출후의 생활도 비교적 하기 쉽다는 것도 가출과 관련된다.

그리고 가출의 直接的인 契機가 되는 것으로서는 주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질책, 학업상의 실패, 失戀, 타인으로부터 유혹(신문, 잡지로부터 정보 등 포함), 돈 입수(아르바이트, 월급이나 금품 持出 등) 등을 생각할 수 있고, 가출과 관련된 시기로서는 방학전후, 시험전후·봄·주말 등을 이용하는 수가 많다.

고찰한 것처럼 가출로 몰아넣는 데는 여러 가지 내·외적 압력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출의 원인을 내·외적인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청소년가출과 관련된 것을 몇 가지 추출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 ① 缺損 및 準缺損 家庭

옛부터 가정환경의 결함 중에서 중시되어 온 것에 결손가정이 있다. 父나 母의 不在時는 어느 쪽이나 경제적·통제적·애정적 문제를 낳아 청소년들에게 가정탈출의 꿈을 꾸게 한다. 예컨대, 夫를 잃은 과부가 한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補償하려는 心理(compensation) 때문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라든가, 모친이 아동의 愛情을 독점하려는 경우라든가, 부친이 너무나 無關心한 경우 등, 어느 쪽이나 집에 귀찮고 싫은 그 누군가가 있다는 감정적 고민이 있어 거기에서 탈출 내지 도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출인데, 어떻게 보면 가출은 집을 나온다고 보다 집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실부모가 俱存해 있어도 가정집단으로서의 機能缺損이 문제가 되고 있는

준결손 가정(quasi-broken home)에서 가출청소년이 많다는 것이다. 즉, 부모의 결손은 없지만, 부모의 기대나 요구가 과대할 때에 親子關係의 障礙에서 일어나는 가출이다.<sup>4)</sup> 이러한 친자간에 갈등상태를 야기시키는 주된 두 가지 要因은 부모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자녀에 대한 일방적인 기대이다.<sup>5)</sup> 먼저 어느 부모세대도 자녀세대를 거쳐서 부모세대가 되지만, 우리의 문화적인 전통은 權威主義的 敎育을 요구하게 되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 권위주의적 敎育의 문제는 理解와 受容보다도 맹목적인 순종을 전제로 자녀세대와의 갈등을 일으킨다는데 있다. 자녀에 대한 一方的인 期待도 우려될 만한 갈등의 근원이 된다. 즉, 전통적인 家門主義의 가치의식과 결부된 男兒에 대한 非現實의인 期待는 구체적으로 學歷을 사회적 상승으로 수단시한 나머지 능력과 적성을 무시한 一流學校 入學이라는 가혹한 심리적 부담을 자녀들에게 안겨준다.

한 調查結果<sup>6)</sup>는 청소년들이 부모와 주로 이야기 하는 내용은 공부/성적(53.2%), 장래/진로(38.6%), 학교생활(31.8%), 친구(20.8%), 음식이나 건강(15.3%), 행동이나 습관(14.2%), 가족(7.2%), 취미나 운동(4.9%), 이성문제(2.7%)의 순으로 밝히고 있고, 또 지난 일주일간 아버지, 어머니와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거나 30분 정도 대화를 했다는 청소년이 각각 38.7%, 17.6%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적으로 가정에서의 全人敎育의 不在, 즉 공부나 진학에만 대화내용이 한정되어 인간적인 폭 넓은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게 하는 부모의 그릇된 敎育태도가 健在하고 있음을 示唆한다.

## ② 思春期의 心理

사춘기의 심리에 기인하는 가출이다. “자기는 이미 한 사람의 성인이다. 부모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고 저런 잔소리 많은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있는가”라는 사춘기 특유의 獨立心(psychological weaning), 反抗心 같은 것에서 가출을 바라는 것으로서, 가족간의 인간관계에 특별한 障礙가 없이도 그러한 심리상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가 없는 가정이면 너무나 단조롭다든가 생활에 情感이 없다든가 하는 것에서 이 시기의 발달적 특징인 刺戟과 冒險을 구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가출을 바라는 경우도 있다. 시골 청소년이 도시 동경심을 품고, 성실한 가정의 청소년이 接客業所의 화려한 생활에 동경하는 것은 그 예이다. 이같은 不安定한 心理狀態에 있을 때 가족 중 누군가 지배적·강압적으로 나온다든가,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가 하는 言動으로 나오면 거의 發作的으로 가출이 이루어 진다.<sup>7)</sup>

4) 樋口幸吉, 非行少年の心理(日本:大日本圖書株式會社, 1983), p. 60.

5) 李星珍·林性洙·李揆成 編, 國家發展과 靑少年(서울:培英社, 1977), p. 147.

6) 문화방송, 「91 MBC 청소년백서」(서울: 문화방송, 1991), pp. 65~67.

7) 樋口幸吉, 前掲書, p. 60.

그리고 사춘기에서 청년기에 걸쳐 볼 수 있는 獨立心과 關係해서 就職을 하기 위하여 家出을 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예컨대, 학교에 다니기 보다는 일하는 편이 좋다는가, 父의 職業을 잇는 것이 싫다는가, 도시에 나가면 얼마든지 좋은 직장이 있다는 다소 달콤한 期待와 冒險心이 뒤섞인 기분으로 家出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 ③ 學習不振 및 學習障礙

학습부진은 그 자체가 심리장애라고 할 수는 없으나, 心理的 不適應을 시사하는 주요한 표징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심리적 부적응, 즉 학습부진의 多樣한 原因<sup>8)</sup>을 먼저 들고, 이 원인으로 인해 二次的인 不適應症狀으로서의 家出과 關係됨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원인에는 첫째, 精神遲滯 등과 같은 전반적인 인지적 결손이 있을 때 정규교육과정안에서의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I.Q의 저능 외에 視·聽覺障礙 등 학습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애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학습부진이 예측될 수 있다.

둘째, 情緒的 要因을 들 수 있다. 즉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 학습동기가 저하되었거나 학습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학업성적이 부진하거나 갑자기 떨어진다.

셋째, 가정이나 학교의 環境이 不適切하거나 불안정한 것이 학습부진의 주원인일 수도 있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특히 學校인 경우 청소년들은 理想的인 학급당 학생수를 11명~30명(67.1%)으로, 어떤 경우라도 체벌은 불가능하다(21.8%)고 밝히고 있다.<sup>9)</sup> 前者는 우리 학교교육에서 過密學級이 열악한 교육조건인 하나임을, 後者는 체벌은 잘못된 敎育方法의 하나임을 시사해 준다.

넷째, 전반적인 인지기능도 정상수준이고 정서적·환경적 요인도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읽기, 독해능력이나 수리능력 등의 基礎學習能力에 缺陷을 보이는 경우이다. 學習障礙(learning disability)로 불리우는 이러한 문제는, 신경학적인 결함에 연유한 특정영역에서의 인지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調查結果<sup>10)</sup>는 학교의 수업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1%에 불과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 학생들이 71.4%이며, 수업을 대체로 이해할 수 없거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학생은 24.5%이다. 또 학교를 매우 싫어하거나(2.7%) 대체로 싫어하는 편이라고 대답한 학생(20.2%)은 모두 22.9%이며,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로 수업내용이 어렵다는 학생은 29.6%에 이른다.

8) 이춘재 외, 청년심리학(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8), pp. 324~325.

9) 문화방송, 전계서, p. 161, p. 163.

10) 상계서, p. 162.

위와 같이 학습부진의 원인을 몇 가지 살펴보았지만, 학습부진의 직접적 원인이 무엇이던간에 일단 학습부진의 문제가 생기면 이로 인한 精神的 負擔感 내지는 반복되는 挫折經驗으로 인하여 二次的인 不適應症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즉 청소년들은 학교의 工夫나 成績으로 인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싶다(38.5%),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36.4%), 불안/초조(33.5%), 두통(32.3%), 무언가를 부수거나 때리고 싶다(30.7%), 웬지 모르게 슬프다(24.5%), 부모나 선생님께 반항한다(16.8%), 복통이나 위장병(14.0%), 자살하고 싶은 심정(11.3%), 가출(8.8%), 축농증 등 비염(8.0%), 불면증(6.7%), 악몽(4.0%)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11)</sup> 이처럼 그들은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거나 심리적 좌절반응을 나타내는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차적인 부정응증상이 나타나면 이로 인하여 학업수행에 더욱 더 지장을 받게 되어 惡循環이 계속되게 되며, 드디어는 가출과 연결된다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 ④ 進路의 不安

進路教育(career education) 또는 進路指導는 진학지도와 취업지도의 上位概念이다.<sup>12)</sup> 즉, 진로교육은 한 가지의 대학진학을 돕기 위한 선택방법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모든 취업 또는 직업지도와 인생의 미래에 누구나 가져야 할 직업적성에 알맞는 지도에 초점을 둔다.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장 큰 두 가지 걱정거리는 공부(55.2%)와 진학(41.1%)이고,<sup>13)</sup> 장래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고교생이 90%에 이른다는 것은<sup>14)</sup> 모두가 자신의 進路의 方向에 대해서 問題意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만큼 소중한 진로의 문제를 일순간에 맡기고 오로지 大入學力考査 점수에만 의존함은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하는 근본정신에도 위배되고 있으며, 무정견하게 선택한 눈치로써 대학에 들어가서도 만족하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전공학과 이수에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들도 상당수에 이르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불만현상은 결국 個人的으로 보아 아까운 인력의 낭비요, 國家的 차원에서 보면 고급인력의 인력소모와 낭비의 현상을 빚어내고야 만다.

또한 최근 高校 卒業生 현황을 보면 매년 졸업자의 약 30%만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려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학졸업후 이들 모두가 100% 취업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이어서 인력수요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게다가 대학 未進學 學生數도 약 70% 정도이니, 이들의 모두가 취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재학시에 충분한 직업기술교육의 습득기회도 전혀없이 인문교육위주로 진학준비에 치중되어 職業適應에 必要한 技術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자가 사회에 배출되고 있는 현실은 학생들에게 진로의 방향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11) 문화방송, 전게서, p. 167.

12) 이춘재 외, 전게서, p. 265.

13) 문화방송, 전게서, p. 128.

14) 이춘재 외, 전게서, p. 264.

이처럼 청소년들이 오늘의 산업사회에서 유용하게 적응할 수 있는 可用技術(salable skill)에 대한 습득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장래의 진로의 방향을 더욱 불안하게 함으로써 學習不振으로 인한 좌절과 함께 자아개념의 저하, 정신적인 무기력 상태는 물론 불안증, 우울증 드디어 심리장애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음주, 흡연, 무단결석, 家出, 나아가서는 비행 및 범죄와도 연계될 수 있다.

### ⑤ 벗으로부터 誘惑

청소년기에 우인관계를 강화시키는 조건은 心理的 離乳와 社會的 制約이다.<sup>15)</sup> 前者는 이 시기의 심리적 특징인 부모로부터의 心的인 獨立現象으로서 이로 인해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지배력이 아동기보다 약해지는 반면에,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우인관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 後者는 아동기와는 다른 相反된 制約이다. 즉, 사회는 청소년을 ‘아직 성인은 아니다’ ‘이미 어린이는 아니다’라는 두 개의 눈을 갖고 본다. 여기서 청소년은 이러한 제약을 심하게 받지 않는 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交友集團을 고르게 되고 또 그 생활이 중심이 된다. 換言하면, 그들은 성인사회의 成員으로서 아직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사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代償的인 地位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sup>16)</sup>

따라서 同病相憐하는 벗끼리 결속하여 힘을 모우고 서로 위로하게 된다는 바로 이것이, 친구文化에 同化 및 誘惑當하는 原因이 된다.<sup>17)</sup> 그들은 부모나 교사보다 동료의 말을 더욱 따르게 되며, 동료집단의 規範이 그들의 행동을 구속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sup>18)</sup>

이같이 교우집단에서의 행동은 同一視나 代理的 強化(vicarious reinforcement)를 통하여 학습되고 만족을 얻게 되므로, 친구들끼리 모이면 行動의 飛躍的인 變化를 가져오게 된다.<sup>19)</sup> 청소년 비행에는 대부분 共犯者들이 있고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빈도가 높은 것도, 바로 그러한 또래집단의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이다. ‘親舊따라 江南에 간다’는 말에는 친구의 인정을 받는 길이라면 이 시기의 극단적인 同調行動의 하나인 集團家出도 不辭할 수 있다는 것을 含意하고 있다.

15) 拙著, “靑少年期の 交友關係에 관한 一研究,” 濟州大學「論文集」, 第10輯, (1979. 2), pp. 396~397).

16) 鄭寅錫, 現代 靑年發達心理學(서울: 載東文化社, 1980), p. 176.

17) 金學守, 現代 教授—學習論(서울: 教育科學社, 1976), p. 231.

18) 澤田慶輔 編, 靑年心理學(日本: 東京大學 出版會, 1970), p. 227.

19) 黃應淵·尹熙峻, 現代生活指導論(서울: 教育出版社, 1987), p. 268.

## ⑥ 特殊한 地域

赤線地帶나 外國軍基地村 혹은 觀光地에 살고 있으면, 여러 가지 非行의 현상을 목격하고 자극을 받게 된다.<sup>20)</sup> 특히 이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노골적인 남녀간의 愛情的 醜態는 이 시기의 강열한 好奇心과 性衝動을 자극하여 욕구를 禁壓만 하는 고리타분한 집을 나올 수 있다.

## ⑦ 目的 追求

가출은 일반적으로 가정으로부터 脱出이지만, 이같이 도망가는 것 뿐만 아니라 孤兒院에 있는 청소년이 부모를 찾기 위하여 뛰쳐나온다든가, 養子가 진짜 아버지나 어머니를 찾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출도 있다. 즉, 目的志向의인 家出이다.

## ⑧ 空 想

자기는 不幸하다고 여기는 청소년이 空想世界 속에서 놀고 있는 가운데 결국 그것에 끌리어서 가출하는 경우나, 冒險小說冊을 탐독한 후 그것을 스스로 체험하려고, 즉 夢想과 現實을 잘 구별할 수 없는데서 일어나는 가출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한다.

## ⑨ 病

病的인 가출로서, 精薄兒나 癡癡兒의 徘徊癖에 의한 가출, 정신분열병환자의 異常體驗에 의한 가출, 感情發揚性型 정신병질자나 輕躁病者의 무분별한 가출, 腦損傷者의 충동적인 가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상과 같이 가출은 內的, 外的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중 한 가지만의 이유로는 가출행동에 이르지 않으며, 특히 時代的 變遷에 따라 오늘날 청소년들의 가출의 원인이나 동기는 複雜多樣하고 또 서로 複合되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출의 원인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심리적인 制壓과 갈등을 주는 환경에 살면서도 받아들이는 태도와 방법에 個人差가 있기 때문에 家出者와 非家出者가 생긴다면, 과연 性格上의 差異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詫摩武俊<sup>21)</sup>에 의하면 가출소년에게는 다음과 같은 性格의 特徵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① 空想傾向이 뚜렷하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에게 다소 인정되지만, 가출청소년에게는 특히 현저하다.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한 나머지, 현실세계의 嚴格性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② 被暗示性이 높다: 타인이 말하는 것을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높다.

20) 鄭寅錫·黃石根·金興圭, 生活指導(서울:載東文化社, 1970), pp.246~247.

21) 詫摩武俊, 青年の心理(日本:配風館, 1986), p.221.



③ 情緒的 不安定性이 높다: 즉, 易怒性和 興奮性이 높은 특징이 있다.

④ 判斷力과 知能發達이 낮다: 부모에게서 욕을 먹으면 곧장 家出을 생각해 버린다는 性格의 未熟性 위에, 부모에게서 受容되지 않을 때에 家出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西方壽雄<sup>22)</sup>은 家出자의 일반적인 性格特性으로서 ① 積極성이나 독립심이 결여되어 依存心이 강하고, 매사에 自信이 없고 무력하다. ② 刹那的으로 흥미로운데 마음을 빼앗겨 본능에 의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 ③ 인내력이나 지속성이 없이 逃避하기를 좋아하고, 매사에 실증을 쉬 느껴 기분에 움직이는 情緒不安定者이다. ④ 열심과 眞意가 없고 懶怠와 虛言이 많은 正心非道인 低格者라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결국, 家出인의 성격적 특징으로 消極性, 情緒的 不安定性, 被暗示性 그리고 低能으로 집약할 수 있다.

## 2. 家出의 形態

고찰한 것처럼 여러 가지 要因이 복합되어 일어나는 것이 家出行爲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家出을 몇 가지 形態로 分類해 보기로 한다.<sup>23)</sup>

### ① 目的志向型

어떤 目的을 가진 家出형으로서, 사명감에 의한 忠誠心의 發露가 있다. 예컨대, 1919년 3월 1일 萬歲運動事件은 자유를 위한 全民적인 일종의 家出행위로 보고 싶다. 싯다르타가 정치적·종교적으로 타락·부패하여 위기절정에 도달한 印度와 인류의 비참한 운명과 인생고와 인간의 무상, 병고의 신음, 출가자와 死者를 보고 부귀영화의 헛됨과 生老病死의 원인 등을 구명하려다 해결을 얻지 못하자 마침내 29세의 젊은 나이에 出家人이 되고만 것도 그 例라 할 수 있다. 전술한 目的追求에 의한 家出은 여기에 해당한다.

### ② 環境忌避型

오늘날 문제 靑少年의 無斷家出은 거의가 자신의 의향에 不適合하거나 自意로 할 수 없을 때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排徊와 逃避로서, 제약된 환경을 떠나 방종하거나 가정이나 직장의 책임과 임무에서 이탈하려는 행위이다. 例로서 가정이나 학교의 trouble로부터 도망가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22) 安載禎, 前掲書, p. 71.

23) 安載禎, 上掲書, p. 73.

託摩武俊, 前掲書, pp. 219~220.

③ 空想型

이미 말한 것처럼 白晝夢에 의한 가출로서, 비현실적인 관념에 사로잡혀서 일어나는 것이다.

④ 非行關係型

이는 가출에 있어서 가장 問題視되는 것으로서, 예컨대 미성숙한 청소년이 가정에서는 불가능한 異性交際를 통하여 불량한 행위를 임의대로 하기 위하여 가출을 한다든가, 학교성적이 불량하여 부모로부터 罰을 받을 것이 두려워 숨어버린다든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 보복이 두려워 所在을 밝히지 않은 것과 같은 행위는 모두 犯罪問題와 관련된 가출이다.

⑤ 特異型

살인, 誘拐 등과 같은 범죄에 의해 생명, 신체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가출인이나, 遺書, 평소의 言動 등에 의해 자살할 우려가 있는 가출인 등을 말한다.

이 밖에 病的 家出型으로서 병적인 內因과 外因에 의한 가출이 있음은 이미 검토한 대로이다.

### Ⅲ. 家出의 實態와 特徵

여기에서는 청소년가출의 실태와 특징을 고찰하기로 한다.

#### 1. 家出의 實態

家出人 發生과 그 處理現況에 의하면<sup>24)</sup> 먼저 家出發生面에서 가출청소년이 매년 약간씩 증가되고 있으며, 1982년도 20세 미만은 11,619명인데 비해, 1988년도에는 1,184명이나 많은 12,803명이나 됨을 알 수 있다. 다음 그 處理狀況으로는 182 申告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迷兒, 棄兒, 및 家出靑少年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도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가출자들에 대한 신원을 확보하여 찾아주기 위하여 全國의 收容施設(영아원·육아원·양노원·복지원 등)에 보호된 者들을 전원 電算入力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Ⅲ-1 참조>

24) 靑少年育成委員會 編, 靑少年白書(서울:靑少年育成委員會, 1989), pp. 365~366.

<표 III-1> 가출인 발생 및 처리상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발생	연령		처리				
		20세미만	20세이상	연고자인계	귀향	수용	수배	기타
'82	31,066	11,619	19,447	6,170	5,903	1,217	16,629	1,147
'83	33,772	11,852	21,920	6,330	6,826	1,487	18,015	1,114
'84	31,611	11,047	20,564	5,712	5,264	1,032	18,704	899
'85	29,095	9,714	19,381	5,377	7,965	950	14,450	353
'86	28,072	8,406	19,666	3,753	2,841	817	20,289	372
'87	37,355	11,386	25,969	4,602	4,608	1,107	26,515	523
'88	38,369	12,803	25,566	4,445	5,255	996	27,347	326

자료 : 치안본부

물은 資料이기는 하지만, 참고로 治安本部의 1977년도 가출인 발생의 지역별·연령별·동기별 상황을 보면 다음 <표 III-2>와 같다.<sup>25)</sup> 먼저 地域別로 보면 1년간의 가출인 발생은 22,529명인데, 전체의 29.4%를 차지한 6,623명이 서울이고, 다음 부산과 경남을 합하면 5,079명으로 22.5%가 된다. 年齡別로 보면 16~19세 사이가 5,656명으로 전체의 25.1%로 가장 많다. 動機別로는 家庭不和가 빈곤이나 방임보다 더 큰 이유인 것을 알 수 있고, 嚴格이 불과 761명인 것을

<표 III-2> 家出發生 地域別 年齡別 動機別

1977年度

區分 市道別	計	年 齡 別								動 機 別									
		12歲 以上	13~ 15	16~ 19	20~ 29	30~ 39	40~ 49	50~ 59	60歲 以上	家庭 貧困	家庭 不和	家庭 放任	家庭 嚴格	都市 憤恨	罰 責	求職 關係	進學 關係	交友 關係	其 他
計	22,529	2,723	3,440	5,656	4,704	2,377	1,134	824	1,671	2,175	3,808	2,768	761	1,008	612	1,824	278	1,838	7,457
서울	6,623	214	1,006	1,567	1,525	762	388	372	789	400	761	654	139	163	221	497	66	504	3,218
釜山	3,497	586	454	676	709	369	173	127	403	155	598	400	60	192	132	240	30	584	1,106
京畿	1,646	307	210	275	334	191	118	73	138	157	316	239	46	56	53	76	6	94	603
江原	759	63	89	229	208	104	33	21	12	148	155	72	10	35	3	86	18	30	202
忠北	773	89	106	161	197	114	50	23	33	127	167	100	35	13	10	85	13	24	199
忠南	1,786	172	412	648	282	122	61	32	57	203	386	271	61	105	48	145	58	202	307
全北	796	175	158	153	122	85	29	23	52	47	102	141	36	50	15	27	4	43	332
全南	1,086	157	213	275	233	114	59	24	11	182	186	154	62	98	26	123	16	72	167
慶北	3,748	790	597	1,127	639	273	114	90	138	530	634	563	228	165	50	440	51	209	878
慶南	1,582	154	179	456	416	215	96	36	30	191	434	152	73	122	51	64	13	65	417
濟州	232	16	36	89	39	28	13	3	8	35	69	22	11	9	3	41	3	11	28

25) 安載禎, 前掲書, p. 60~61.

보아 放任보다는 엄격한 편이 가정교육상 효과적인 것을 示唆하고 있다. 방임, 빈곤 외에 交友 및 求職關係도 가출과 연계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事實들은 곧 年齡에 따른 가출 동기를 明細化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의 家出動機의 一端을 엿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 2. 家出의 特徵

安載禎<sup>26)</sup>에 의하면 오늘날의 청소년 가출문제는 과거와는 다른 樣相을 띠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 5 가지로 그 特徵을 분류·검토하고 있다.

① 청소년가출이 漸增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學生家出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Ⅲ-1〉에 의하면 가출인 발생 상황은 1988년에는 1982년 20세 미만의 가출인보다 1,184명이나 증가했다. 여기에는 학생가출이 상당히 내포되고 있다고 假定할 수 있는데, 그 原因 중에는 學生人口의 증가외에도 學校平準化 이후 개인의사에 관계없이 배정된 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데서 오는 학교생활의 부적응 혹은 욕구불만, 열등감이라든가, 思春期에다 入試의 失敗, 진학·취업 등 都市憧憬心이라든가, 부모의 지나친 간섭에 대한 反抗心理와 無關心 등을 들 수 있다.

② 가출연령이 年少化하는 경향이다.

20세 미만 청소년가출이 과거 16~20세에 분포되었던 年齡群이 13~18세로 집약되었다.<sup>27)</sup> 이처럼 가출청소년의 연소화 경향은 시대적 변천에 따라 신체성장은 加速化 되었지만, 이에 따라 정신적·경제적·사회적 발달이 미숙한 발달의 異時性(asynchrony)<sup>28)</sup>으로 인한 무분별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막연한 공상을 유발한데서도 그 原因을 추찰할 수 있다.

③ 과거에는 農·漁村에서 무작정 상경하는 가출이 많았지만, 근래에는 中·小都市 출신 청소년 가출이 漸增한다.

〈표Ⅲ-2〉는 물론 〈표Ⅲ-3〉에서도 서울, 경북, 부산 등지의 도시 20세 미만의 가출인이 많다. 이처럼 中·小都市에서의 청소년 가출이 점차 증가하는 이유는 核家族의 경향에서 점차 부모와의 對話의 斷絶에서 오는 소외와 고립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物質文明化로 인해 화려한 생활을 동경하는 청소년이 늘어난다고 풀이할 수 있다.

26) 安載禎, 青少年的 非行과 實態, 非行善導叢書, 2(서울: 韓國基督教青少年善導會, 1982), pp. 444~446.

27) 同揭書.

28) 鄭寅錫, 前揭書, p. 80.

<표 III-3> 家出人 發生狀況(1980)

(單位：名)

區 分	計	年 齡	
		20歲 未滿	20歲 以上
計	26,616	12,207	14,409
서 울	8,487	3,327	5,160
釜 山	4,410	1,973	2,437
京 畿	2,104	936	1,168
江 原	1,066	609	457
忠 北	699	299	370
忠 南	1,590	804	786
全 北	706	331	375
全 南	1,171	645	526
慶 北	4,359	2,495	1,864
慶 南	1,685	677	1,008
濟 州	369	111	258

資料：治安本部

④ 빈곤가정 보다 中産層 이상의 家庭에서 청소년 가출이 더 많다.

그 이유는 경제적 풍요가 청소년들의 精神的인 豊饒까지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과 가정경제의 향상에 따른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敎育熱은 자녀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켜 부모의 기대에 열등감을 느끼어 드리어 逃避를 위한 家出을 하게 된다.

⑤ 과거의 결손가정에 비해 準缺損家庭에서의 청소년 가출의 증가 현상이다.

고찰한 것처럼 부모들의 그릇된 態度, 즉 청소년들의 內面的 成長을 무심한 과잉보호나 기대, 방임, 엄격 등 부모들의 退色된 指導나 訓戒만으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부모들의 무절제한 생활태도와 가정불화가 反動形成的(reaction formative)으로 가출의 동기가 되기 쉽다.

#### IV. 指導方案

청소년들의 가출 등의 비행현상이 신체적·생리적 조직의 비정상적인 기능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면, 외과·내과, 정신과 의사의 技術的인 處方이 주요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대부분의 가출은 身體的인 機能의 국부적 손실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다. 고찰한 것처럼 삶의 진행과정이 여러 가지 要因的 原因에 의해 社會·心理的으로 沮害되어 발생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삶의 진행과정이 사회·심리적으로 저해받아 야기되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指導方法의 構築과 應用이 요구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편의상 가정적·학교적·사회적 측면에서 일반

적인 豫防法을 먼저 검토한 다음, 事後指導法에 대해서도 一抹의 고찰을 하고자 한다.

## 1. 一般的인 豫防法

‘집은 있으나 家庭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가출의 주된 원인은 가정문제에 있다. 가출예방과 대책은 바로 이 가정의 문제해소부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문제해결이라기보다 자녀의 自律性을 기르고, 부모가 敎師의 役割을 다 하기 위한 家庭敎育的 次元에서 몇 가지 提言을 예방법과 대책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 1) 家庭敎育的 側面

첫째, 청소년 스스로 자기 행동을 통제·조정하는 自律性을 기를 수 있는 機會를 확충한다.

부모는 부모대로의 職業的·社會的 活動에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 나름의 생의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子女敎育이나 問題는 학교나 교사에게 전담시켜 책임을 전가시키는 태도가 일반적이다. 우리 부모들의 자녀진학에 대한 敎育熱은 세계에 뒤지지 않지만, 자녀에 대한 敎育役割은 학교나 교사에게 떠 맡기는 無責任한 父母로도 세계에서 보기 드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주말이나 휴일 또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그들이 自律的으로 활동을 계획·실천하고, 또 터득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 즉 그들과 함께 등산·여행·야외캠프·청소년 수련장을 통해서 自律性을 키우는데 최대한의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의 敎育機能에 대한 再認識과 強化가 요구된다.

가정만이 할 수 있는 교육기능을 포기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 순수한 愛情과 人間關係의 경험, 가정밖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寬容과 休息의 분위기, 그리고 확고한 判斷基準의 제공이 바로 그것이다.<sup>29)</sup> 특히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신체적인 안정감이 아니고 情緒的인 安定感(emotional security)이다.<sup>30)</sup> 마음의 안정은 사랑을 토대로 한다. 異性問題·進路問題·넓어지는 友人關係 같은 지금껏 없던 여러 가지 새로운 적응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청소년기에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다정한 우인으로서 親子關係를 맺을 때에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부모는 가장 協力的인 立場에 설 수 있다. 가정에서의 안정감이 보장됨으로서만 비로소 청소년들은 행복한 심정으로 外部的 活動을 할 수 있게 된다.<sup>31)</sup> 가정에서 확고한 판단기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一貫된 態度와 言行이 一致되는 가치관을 보여주어야 한다. 주변분위기와 기분여하에 따라 동요하는 모습들은 부모를 無能하게, 부모의 뜻에 따르는 것을 값없게

29) 문화방송, 전개서, p. 157.

서봉연·이춘재, 바람직한 성적 적응의 지도(서울: 中央學生指導研究所, 1970), pp. 27~29.

30) 朴俊熙·田贊和, 青年心理(서울: 凡文社, 1964), p. 137.

31) 桂 廣介, 青年心理學(日本: 金子書房, 1969), pp. 96~97.

여길 우려를 낳게 된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확고한 人生價値觀과 뚜렷한 教育哲學을 갖고 있어야 한다. 부모가 이러한 行動指標의 規範이 될 때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가정에서 안정을 느끼며, 自信있는 태도와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단순히 자녀를 기능적인 인간으로 평가하지 않고 다양한 면의 個性을 지닌 獨立된 人格體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자녀는 가정을 배경으로 자신의 潛在力을 펼쳐볼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전문교육기관이 많이 생겨나도 가정에서도 나뉘는 教育機能을 갖고 있음을 인식,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부모의 均衡있는 教育參與가 기대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대 가정교육이 지나치게 어머니 교육으로만 偏重되어 있는 반면, 아버지 교육은 상대적으로 不在되어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母 교육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초로 한 情緒教育이라면, 父 교육은 秩序와 規律를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sup>32)</sup>

父가 없는 가정, 아니 있어도 父의 機能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정이라고 불리우는 현대사회에서, 男兒에게 동일시 할 父像(father figure)이 희박하다는 것은 인격형성상 문제시 된다. 精神分析의 관점에서 보면 父는 善惡의 구별을 가르치고 세상의 규범에 따라 욕구를 제어해야 할 것을 보이는 존재로서<sup>33)</sup> 父不在는 아동의 사회화를 어렵게 만든다. 한 조사결과는 母와 일주일에 2시간 이상 대화를 하는 청소년이 65.6% 이어서, 아버지(37.3%)보다 母와 대화시간이 더 많음을 보이고 있다.<sup>34)</sup> 가정내 暴力이나 登校拒否에 빠지는 학생에게는 母子密着과 父不在가 많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sup>35)</sup>

이렇게 교육은 전적으로 어머니만의 責任問題가 아니다. 옛글에도 ‘嚴父慈堂’이란 말이 있듯이, 사랑과 규율이 共存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教育的 關心과 共同參與가 있어야 한다.

넷째, 현대사회에 대한 聰明한 適應이 필요하다.

현대생활에 대한 부모들의 적응이 현명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생활태도나 가치관에 있어서나 자녀들의 그것과 世代差가 심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 필요하다. 부모들과 청소년들과의 心理的 隔差는 연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사실이기도 하다. 그렇다는 것은 부모들이 지닌 人生觀, 理想, 사회적 태도란 그 基本構造面에서 그들 청소년기 당시의 생활조건이나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편에는 서구적 외래문화에 쉽게 호응하지 않고 과거 전통문화에 집착하는 경향을 가진 心理-生理的으로 老化狀態에 있는 기성세대와 또 다른 한편에

32) 문화방송, 전계서, p. 156.

33) Calvin S. Hall, A primer of Freudian psychology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54), pp. 46~49.

34) 문화방송, 전계서, pp. 66~67.

35) 岸本 弘·紫田義松 編, 教育心理學(日本:學文社, 1987), p. 116.

는 서구적 외래문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젊은 세대간에는 자연 軌轍과 갈등을 빚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인지도 모른다.<sup>36)</sup>

따라서 부모들은 이러한 청소년들과의 感情的·心理的 距離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도 자기들의 경험과 가치관에만 執着할 것이 아니라, 현대의 사회생활과 이념에 적응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sup>37)</sup> 이러한 적응은 물론 부모들이 현대의 모든 流行에 무조건 순종함으로써 부모의 권위를 약화시켜야 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의 權威라 함은 부모의 일방적인 권력장악이라든가 전체적인 성격의 권위가 아니라, 현대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價值的 妥當性을 참작하고 이에 적응하면서 자녀교육의 主體者로서, 調節·整理者로서의 권위를 뜻한다. 부모가 이러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어야만 자녀에게 內的 參照體制(internal frame of reference)를 만들어 주고 기존의 사회질서를 內面化시킬 수 있도록 中間役割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즉, 부모의 권위가 認定을 받아야만 자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 學校教育的 側面

學校教育은 개인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경험의 조직화된 총체이다.<sup>38)</sup> 그러므로 학교교육의 正常的인 모습은 知·情·意의 조화적인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균형있게 제공하는 것이며, 바로 이 均衡있는 發達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곧 가출의 豫防과 對策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韓駿相<sup>39)</sup>은 학교교육은 청소년들에게 生存을 위한 教育을 제공해야 될 당위성과 실천성을 갖고 있다면, 學校教育의 目標를 최소한 다음 5 가지 항목으로 재진술하고 있다.

첫째, 학교교육은 사회적으로 有用하게 쓰일 수 있는 技術과 知識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일정한 교육기간을 끝낸 후 職業市場에 투입될 때, 학교는 졸업생들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조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합당한 지식, 기술을 소유하게끔 교육시켜 놓아야 한다. 생존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基礎教育은 물론, 進路教育도 철저히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놀이성, 創意性, 自己實現의 欲求가 학교교육을 통해 충족·구체화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풍부한 想像力을 발동해서 그 무엇인가 미지의 것을 찾아 心象化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과 사회를 자기 자신과 관련시킨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탐색할 수 있는 審美的 能力

36) 申銀淑, 『世代間的 葛藤問題와 教育』, 教育學研究, 第14卷 第1號(1976), pp. 61~65.

37) 桂 廣介, 前掲書, p. 95.

38) 李星珍 외 二人, 前掲書, p. 148.

39) 韓駿相, 『靑少年問題와 學校教育』(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9), pp. 454~455.



이 학교교육을 통해 계발되어야 한다. 오늘의 학교교육은 외우고 베끼는 훈련은 시키지만, 자신에 대한 可能性을 찾는 훈련은 말살시키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自己實現에는 4 가지 요소 ①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확보, ② 개방적인 자세 유지, ③ 이타주의 추구, ④ 정보·지식 추구 등이 한 개인에게 골고루 스며들어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sup>40)</sup> 즉, 한 인간이 全人教育을 받았을 때 전인교육의 결과로 나타낼 수 있거나 갖고 있을 수 있는 屬性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 남들과 근본적인 것들은 共有하려는 자세, 사회에 대한 책임, 확대된 지식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험추구를 지속시키는 의지로 나타나야 한다.

학교 교육마저 궁극적으로 소수에 의한, 소수의, 소수를 위한 知的·情緒的 結果를 제공하는 장소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人間關係 形成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와 人間關係 維持의 欲求가 학교교육을 통해 배양되어야 한다.

전전한 인간관계의 형성은 젊은이의 社會的 適應力을 실험케 만드는 또 하나의 생존기술이다. 이러한 대인관계 형성 기술과 자율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학생의 課外活動이다. 취미에 맞는 씨클 및 클럽활동을 통해서 집단목표달성을 위한 協同精神과 사회성원으로서의 責任있는 役割을 학습할 수 있으며, 교사의 적절한 지도·조언하에서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을 스스로 규율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향을 기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확충해 줄 때에만 민주사회에서 요청되는 시민적 자질의 하나인 긴요한 自律性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sup>41)</sup>

많은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은 오늘날과 같은 入試競爭과 出世에 대한 壓力 때문에 여러 가지 이념과 관심을 탐색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므로, 청소년기는 이것을 탐색해 보는 役割實驗期間(period of role experimentation)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2)</sup> 물론 청소년기에 자신의 正體感(identity)을 획득하기란 어렵지만, 자신을 시험해 보기 위해 여러 클럽에 가입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보기도 하는 등의 다종다양한 역할과 행동양식을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人生觀을 수립하는데 一助가 될 것이다.

Gruber 와 Beatty<sup>43)</sup>에 의하면 美國의 어떤 학교에서는 각 학생이 3 方面에 각기 하나씩의 재주를 갖도록 권장한다고 한다. 즉, 그 3 方面이란 ① 머리를 쓰는 재주(지식과 상상력을 갖는 일), ② 손을 사용하는 재주(예술·공작을 포함하는 손을 사용하는 기술), ③ 발로 하는 재주(개인 및 단체경기를 포함하는 신체적 발달에 관계된 어떤 기능)로서, 이 三者의 고른 발달을 기하는 것이어서 매우 흥미롭고, 우리에게 주는 教育的 示唆가 크다.

40) 上揭書, p. 434.

41) 鄭元植·李相魯·李星珍, 現代教育心理學(서울:教育出版社, 1984), pp. 336~337.

42) Ernest R. Hilgard and Others, Introduction to psychology, 7th ed.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9), pp. 92~93.

43) Frederich C. Gruber and Thomas B. Beatty, Secondary school activities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Inc., 1954), p. 73.

넷째, 학교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철과 分別力(maturity)이 깃들여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나누는 정신과 어려움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共存의 精神이 학교교육을 통해 다져져야만 한다.

注入式 授業으로는 이러한 민주시민의 능력을 키워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前述한 과외활동의 권장 및 特活과 학급회의 시간 활용은 물론, 가능한 한 探究授業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sup>44)</sup> 탐구수업의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討議法과 問答法이 있다. 탐구수업을 위해서는 교실 분위기가 自由스러워야 하며, 學生이 活動의 中心이 되고 교사는 보조자의 위치에 서야 한다.

Piaget의 認知發達理論에서 중요 개념 중의 하나는 自己中心的인 思考인데, 이는 인지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sup>45)</sup> 이런 사고방식은 상호 협동적 관계를 통해서 남의 생각이나 관점을 이해하게 되는 데서 점차 變容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上記의 여러 학생들과 協同적으로 일할 수 있는 機會는 더욱 增幅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젊은이에게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간의 倫理와 道德的 價値가 철저히 전수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적 가치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삶의 絕對的인 指針이 되기 때문이다. 서구적인 것이라 해서 무조건 좋고 우리 것이라 해서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좋은 가치와 도덕을 발굴·수호해 나갈 때, 韓國的으로 健康한 人間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傳統的인 價値觀 教育에서는 다음 두 問題가 介在될 수 있으므로, 이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하나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서 강조되어 온 德目(moral item)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도덕교육의 質的 改善을 위해서는 덕목의 교육과 병행하여 도덕적 判斷能力을 伸張시키는 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sup>46)</sup> 즉, 도덕적 판단능력의 신장을 도덕교육의 또 다른 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敎科內容을 선정하고, 도덕적 딜레마를 討論하는 授業을 실시하며, 도덕적 추론능력을 評價하는 活動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교육은 變化의 衝擊(impact)을 줄이기 위하여 되도록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의 均衡을 취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sup>47)</sup> 급격히 변동하는 사회에서 학교가 너무 전통적인 가치관에

44) 金恒元, “民主主義와 教育”, 濟州大學校 師範大學 附設 中等敎員研修院 編, 研修敎材(제주: 사범대부설중등교원연수원, 1992), pp. 54~55.

45) 韓宗哲, 敎育心理學(서울:良書院, 1990), p. 57.

46) 金言柱, 新敎育心理學(서울:文音社, 1987), pp. 96~97.

47) 宋柄淳·車京守, 學校와 地域社會(서울:學文社, 1975), pp. 207~208.

만 고집하는 경우 革新 (innovation) 이 말살되어 변화에 不適應하게 되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학교가 갑자기 새로운 것만 강조하고 전통적인 규범을 경시하면 社會化의 缺乏으로 인해 社會組織을 崩壞할 위험성이 있다. 즉, 학교는 기본적인 사회화의 역할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전통적인 문화유산의 전달을 꾀해야 하는 반면에, 文化的 遲滯性이 나타나지 않도록 혁신적인 것을 가르침으로써 변화의 충격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文化遺産의 傳達과 變動의 促進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학교의 기능에서 적절한 均衡을 취할 때, 교육은 현존하는 體制 속에서 漸進的인 變化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로 보아 바람직한 靑年像은 彈力的인 價値觀을 가진 人間이어야 한다.<sup>48)</sup>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對話와 說得으로 대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修正할 勇氣가 있어야 한다. 또 탄력적인 인간은 外來文化를 너무 조급하게 받아들여 固有한 同質性을 파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傳統的인 것만을 고집하여 外部世界와의 斷絶을 가져오지도 않는다. 즉, 외래문화의 受容過程에서도 자기 자신을 항상 잃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상황을 중심으로 하는 價値觀의 模型을 연구·개발·발전시켜야 한다. 즉, 學者들은 이 모형을 글로 조리있게 설명하고, 敎育者는 이런 형의 사람들을 만드는데 힘쓰고, 社會人은 이런 사람이 되려고 자율적인 노력을 가해 나가는 것이 우리 民族의 道德社會를 建設하는 길이다.<sup>49)</sup>

### 3) 社會敎育的 側面

여기에서는 사회의 비교육적 기능과 환경을 개선하고, 또 보다 바람직한 靑少年문화의 육성을 위한 방안을 사회교육적 측면의 豫防과 對策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의 非敎育的 環境 整備에 노력한다.

두발·복장의 자율화 이후, 학생이 유흥업소 출입이 전에 비하여 용이해졌다. 校門 밖을 한 발 나서면 숙박업소, 遊技場, 만화점, 주점 등이 줄을 잇고 있다. 고쳐진 學校保護法은 각급 학교 담에서 300m 이내 지역에서는 이러한 有害環境을 일체 불허한다고 못을 박고 있지만,<sup>50)</sup> 예나 지금이나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각색의 遊興業所의 門을 활짝 열어놓은 채, 교복과 두발형의 자율화를 해 놓고 십대의 출입을 금지하는 처사는 畚 주린 자에게 珍羞盛饌을 차려놓은 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접객업소 영업자의 無責任한 商業行爲가 더욱

48) 黃應淵·尹熙峻, 前掲書, pp. 368~371.

49) 康宇哲·金忠烈·蘇興烈, 道德과 敎育(서울:培英社, 1978), pp. 365~366.

50) 黃應淵·尹熙峻, 生活指導(서울:敎育出版社, 1978), p. 398.

학생문제를 誘因하게 된다는 점이다. 業主들은 營利만 내세우지 말고 자기 子息이라는 마음으로 未成年 學生들을 출입금지시키고 선도에 檢査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한 對策으로는 청소년들의 兇凶·숙박업소 출입시 住民登錄證을 제시하는 것을 制度化하여, 위반시 營業자에게 엄중 처벌할 수 있는 法的 措置를 강력히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해한 환경을 단속한 것에 대한 褒賞制의 실시이다. 일반적으로 成人의 犯罪적발자에게만 포상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를 야기시키는 變態營業所 및 무허가 업소 摘發者에게도 포상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지급이나 職級昇進을 해 주는 일이다.

나라가 健康하려면 靑少年들이 건강해야 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려면 敎育부터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한 敎育은 건강한 敎育環境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有關機關들이 다같이 학교주변을 명랑하게 만들기 위해 協助體制가 잘 이뤄져야 하며, 또 이럴 때 學生校外指導도 그 實效를 거둘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을 위한 心理的·物理的 空間이 필요하다.

학교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비교육적 환경요소를 斷束·整備하는 일도 물론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현재의 청소년에게는 심리적·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 더욱 필요하다. 진정으로 심리적 공간으로서의 相互作用의 공간을 보장하며,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놀이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일이다.

청소년들의 餘暇費用을 위해 확충되어야 할 공간이나 시설을 중복응답으로 알아본 結果<sup>51)</sup>는 체육운동시설(41.0%), 야외캠핑장(32.1%), 공원(28.4%) 공연장(27.5%), 음악감상실(23.3%), 도서관(17.8%), 청소년카페(15.1%), 청소년 디스코텍(9.1%) 등의 순으로 지적되어, 野外 놀이 공간을 많이 원하고 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成人志向의 文化란 점과 이른바 境界人(marginal man)이란 점에서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부모들마저도 내 아이를 위한 온갖 投資는 아끼지 않으면서, 그 아이가 생활하는 社會環境에 대한 투자에는吝嗇한 感이 없잖다. 만일 청소년의 발전적이며 탐색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與件을 조성해 주지 못 한다면, 그들은 거의 無分別하게 성인문화를 모방한다는 데에 問題의 深刻性이 있다. 그것은 성인문화의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이 精選됨이 없이 청소년의 生活領域을 침범하는 사태를 야기시킨다.<sup>52)</sup>

이런 점에서 大企業이나 篤志家의 資本을 유인하여 人口 30萬 이상의 도시에 靑少年 會館·花郎의 집·靑少年修練의 집 등 하나 건립·운영하여, 청소년의 發展的인 文化가 건설하게 육성될 수 있는 그야말로 名實相符한 靑少年文化綜合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가의 行·財政的 支援이 시급하다.

51) 문화방송, 전계서, p.106.

52) 李星珍 외 二人, 前掲書, p.151.

이와 관련하여 問題學生을 위한 空間마련의 한 가지 적극적인 教育정책으로서 퇴학직전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 상담, 教育적으로 조력해 주는 學生訓練院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退校學生學校의 설립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sup>53)</sup> 학교라는 공간에서마저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곧장 아무런 준비, 훈련, 제재도 없이 일반사회 속으로 流入, 亂民化되어가는 부작용을 教育적으로 최대한 治癒해 볼 수 있는 社會教育的 空間을 기존 학교공간과는 다른 형식으로 설치·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매스 미디어의 淨化 및 教育的 活用이 필요하다.

매스 미디어에 있어서도 도덕교육의 좋은 學習資料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에서 좀더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敎科書가 몇 해 동안 바뀌지 않는 原理의 提示라고 하면, 新聞, 放送은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살아있는 敎材이다.<sup>54)</sup> 그런데 이 매스 미디어는 인간의 관점을 擴大深化시켜 주고 정신적 淨化劑의 역할을 하는 順機能이 있지만, 새로운 욕구불만과 긴장을 조성하여 비행을 유발시키는 逆機能(dysfunction)도 있다.

Lange, Baker와 Ball<sup>55)</sup>은 매스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暴力物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물들을 종합 분석한 바 있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매스컴의 否定的인 機能과 효과는 개인에게 두 가지 형식, 즉 學習의 效果라는 단기적인 효과와 社會化的 效果라는 장기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었다.<sup>56)</sup> 매스 미디어를 통해 방영되는 폭력물에 노출된 아동·청년들은, 전과 수상기를 통해 방영되는 내용물이 제시한 것 같은 유사한 유형이나 상황에 수상기를 통해 인지·기억한 경험을 즉각적으로 반영, 노출시켰다. 이 때의 전과매체 효과를 학습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전과매체를 통해 방영되는 폭력물을 청소년들이 장기간 시청한 후 폭력물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가치·규범·의미 등을 자신에게 內面化시킨 것을 사회현장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킬 때, 그 개인은 전과수상기의 폭력물에 사회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Lange, Barker와 Ball은 전과 수상기가 단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時間變因을 통해 청소년들의 태도와 행위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공격행위는 사회적 환경과의 단순한 접촉·관찰에 의해서도 학습된다는 Bandura<sup>57)</sup>의 攻擊刺戟 接觸說의 타당설을 입증한다.

53) 양길환, "퇴교학생 교육기관 설립 절실", <조선일보>, 1980.10.24, p. 4.

54) 康宇哲 外 二人, 前掲書, p. 364.

55) D. L. Lange, R. K. Baker & S. J. Ball, Mass media and violence (Washington, D. 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56) E. Homberg, Preschool children and television : Two studies carried out in three countries (New York, K.G. Saur, 1978).

57) A. Bandura, "Social learning theory of identificatory processes," in D. A. Gosline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 Rand McNavy, 1969).

Roe<sup>58)</sup>의 연구는 학교교육이 청소년들의 전파매체 사용·소비 및 대중문화에 대한 消費教育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할 때, 전파매체가 그들에게 否定的인 影響을 끼치게 됨을 例示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를 綜合·分析하면, 학교에서 價値있는 行動으로 학습한 것이 사회에서는 그것이 無用·無價値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눈에 비쳤을 때, 그들은 현실에 반영된 모순된 행동의 가치와 패턴에 同化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어느 나라나 청소년의 非行問題가 가장 큰 社會問題의 하나로 浮上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가치관의 모순이라는 社會文化의 病理面에서 우선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sup>59)</sup>

이와 같이 대중매체 중에서도 電波媒體와 청소년과의 密着性은, 이제 청소년의 態度 및 價値觀 形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大衆媒體機關은 靑少年文化의 健全한 育成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여 學生生活指導를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전파매체로부터 청소년을 隔離시키는 것만이 能事가 아니라, 그것을 教育的으로 活用하는 것이 학교에서의 어떤 努力보다도 더 큰 影響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銘心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전한 社會風土 造成을 위한 기성세대의 連帶意識이 강화되어야 한다.

‘풍요속의 不幸’이란 말이 있다. 현대 인간이 價値觀의 葛藤에서 범퇴·자살·정신병·소외 등으로 시름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萬事를 物量的인 基準으로 평가하려는 生活態度의 蔓延은 온갖 精神的·行動的 頹廢性을 유발시키고 있다.

돈을 귀하게 여긴 나머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生命輕視風潮와 사람을 믿지 않는 不信思潮, 소득과는 무관한 消費性向과 奢侈風潮, 노력에 의한 댓가를 받기보다 쉽게 돈벌고 五欲樂을 누리려는 享樂主義와 安逸主義, 그리고 이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利己主義의 경향 등이 充滿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성인사회의 道德的 良心이 무너진 상태에서 청소년들에게만 깨끗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이다. 뚜렷한 批判力을 갖추기에는 아직도 이르고, 또 다른 어느 시기보다 感受性이 예민하고 好奇心이 강한 사춘기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無秩序한 社會環境에 발맞추듯 家庭逸脫·脫線하는 것은 기이하다기보다 오히려 당연한 歸結같이 생각된다.

그러므로 성인사회의 儉約과 검소한 生活態度의 覺醒, 대량소비에 깃들인 享樂風潮의 反省 및 양심과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젊은이의 意志가 실현될 수 있는 社會風土를 조성하기 위한 기성세대의 連帶意識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58) 韓駿相, 前掲書, pp. 176~177.

59) 鄭寅錫, 現代教育心理學(서울: 載東文化社, 1981), p. 362.

## 2. 事後 指導法

이는 청소년이 가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이루어지는 지도법으로서, 사실 가출자가 自意나 他意로 되돌아왔을 때 어떻게 처음 對하느냐가 큰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이 問題解決에 도움이 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sup>60)</sup>

첫째, 冷情을 잃지 말고 知的으로 對한다.

마음 속에서는 불이 날 정도로 화가 치솟더라도 '너석 고생했지!'하고 손으로 등을 두드릴 수 있는 정도의 沈着과 여유 그리고 愛情어린 제스츰어가 있어야 한다.

둘째, 가정이 安息處임을 자각시킴과 동시에 가출자의 마음에 良心의 發動을 조장한다.

'목욕 좀 하고 푹 쉬어서 피곤을 풀도록 하라'고 함으로써 가정이 위안처임을 일깨운다든가, 집에 가면 얻어 맞고 혼이 날 줄 알았지만 의외로 잘 맞이해 주는 言動 등은 '罪悚하다'는 의식을 들게 할 것이다.

셋째, 부모와의 單獨 面談機會를 갖고 스스로 자기 잘못을 말하도록 霧圍氣를 造成한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할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루·이틀이 지나도 家出動機나 家出後의 生活 그리고 現在의 心的 狀態를 말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철수야, 너 아빠(엄마)에게 무슨 할 말 없니?' 정도로 유인시킬 것이다.

넷째, 본인 스스로가 가출에 대한 全般的인 事實을 진술하지 않고 적당한 것만 말하면서 넘어 갈려고 할 때는 冷情하게 캐묻는다.

즉, 가출동기와 뛰쳐나가서의 생활 그리고 현재의 솔직한 심정 등에 대해서이다. 만일 陳述 속에서 가출의 결과가 가정의 霧圍氣가 원인이 었다면 그 原因을 제거하고, 惡友의 유혹이라면 指導가 있어야 한다. 부모가 拒否의 이 었다면 서서히 많은 時間을 같이 지내도록 고려한다. 즉, 극장이나 외출, 등산, 낚시 등의 경우 同行하게 하고, 흥미있는 활동이나 物心兩面의 후원을 해야 하고, 때로는 적당한 용돈을 가끔 주어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親子間에서 철저한 早期治療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再發할 위험성이 크다.

다섯째, '가출했더니 萬事亨通이로구나'하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특히 유념한다.

우리 부모들은 가출 再發을 방지하기 위한 方便으로 가출전 보다 더욱 親切과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구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은 절대 禁物이다. 인간의 욕구만족은 再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初犯은 再犯의 素地가 있다고 하지 않는가.

60) 鄭寅錫 외 二人, 前掲書, pp. 247~248.

文部省, 前掲書, pp. 14~15.

## V. 結 論

지금까지 청소년 가출의 원인적 요인과 실태 및 특징을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가출방지를 위한 一般의인 豫防法과 家出後의 指導法에 대해서 탐색해 보았다.

考察한 것처럼 청소년의 가출행동이 여러 要因, 즉 個人的 요인, 家庭的 요인, 學校的 요인, 文化·社會的 요인 등에 의해 야기된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요인적 原因 하나 하나에 대해서 根本的으로 改善하거나 除去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절감케 한다. 그러나 가출행동의 원인은 이전과는 달리 그렇게 單純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적 원인이 서로 複雜하게 結合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한 통념이다. 特히 청소년 가출행위는 그들의 身體的 機能의 損失에서가 아니라, 삶의 진행과정에서 社會·心理的으로 沮害되어 야기되는 결과라는 점에 注目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의 가출행동에 대한 豫防과 治療的 接近으로서는 문제를 지닌 個人에 게 원인을 귀속시키어 그 개인의 身體的 治療, 性格의 成長이나 變容만을 최종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학교·지역사회 등의 시스템 全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61)</sup>

‘인간은 環境의 產物’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출·비행 등을 일으키는 자는 靑少年이지만 비행의 造成者는 사회·학교·가정의 환경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은 오히려 善意의 被害者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가출의 豫防과 指導問題는 가정·학교·사회가 공동적으로 해결해야 할 課題이며, 또 이들 三者의 共同的인 努力이 경주될 때에만 그 예방과 지도의 實效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굳이 Neill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이 세상에는 ‘問題의 靑少年’이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존재하는 것은 ‘問題의 家庭’ ‘問題의 學校’ ‘問題의 社會’라는 엄연한 사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 청소년들을 ‘밝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지도·보호하기 위한 萬般의 對策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61) 久世敏雄 編, 變貌する社會と靑年の心理(日本: 福村出版, 1990), pp. 121~122.